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2010년 12월

# 기업가정신과 정책환경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김학수\*

본 논문은 창업환경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변수들이 주요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정책 변수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조세부담이 클수록, 창업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보다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의 요인은 기업가정신을 어떤 지표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보다 과감한 창업환경 개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해 주지는 않으며 정책적으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를 통한 고령화 속도 둔화는 기업가정신 제고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기업가정신, 조세정책, 창업환경

JEL 번호: A10, H20, K20

\* 한국경제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hskim67@keri.org)

본 논문은 2009년 하반기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 Insight “김학수(2009),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접수일: 5/14, 게재확정일: 6/9

# I. 서론

과거 외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와 제도 등과 같은 중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들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후 ‘새로운 지식’ 또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Romer(1990)나 Aghion and Howitt(1992) 등의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경제성장 모형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서도 신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실현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롭고 창의적 지식이 경제 내에 아무리 많이 존재하더라도 그 지식을 상업화하여 가치 또는 부의 창출로 실현하는 기업가정신이 발현되지 않고서는 신지식이 성장에 기여할 길은 없다(Audretsch and Thurik, 2001; Audretsch and Keilbach, 2004).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기업가정신은 최근 들어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되며 강조되고 있다.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 등과 같은 혁신적 신생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가 알려지면서부터 볼 수 있다. 혁신적 기업들의 창업과 빠른 성장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계에서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Audretsch and Thruik(2001), Salgado-Banda(2005), Kreft and Sobel(2005), Dawson(2006), Gwartney et al.(2004) 등과 같은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기업가정신은 노동 및 자본의 물리적 생산요소와 기술수준 이외에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개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 등에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며 새로운 이윤기회를 탐색하는 기업가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윤기회를 포착하여 실현하며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업가의 행동에 정책환경도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오류 중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오류를 고려하면 정책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첫 번째 오류는 기업가가 수행하려는 특정 사업이 수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시작했으나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그 사업을 수행한 기업가의 장부상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기업가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의 두 번째 오류는 특정 사업의 수익성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두 번째 오류는 장부상 손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지만 첫 번째 오류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오류는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잘못된 사전적 판단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오류에 의한 장부상 손실과 다를 바 없다. 기업가들이 두 번째 오류에 빠지게 되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을 성공 가능한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의해 확대될 수 있었던 투자와 고용은 그만큼 위축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소비자들은 생산물의 소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효용을 포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같이 제반 거시경제 여건이 견실하지 않은 상황은 기업들의 수익성 판단을 보다 보수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두 번째 오류 가능성은 확대된다. 이는 결과적

1) 최근의 실증분석 연구들 중에서 Audretsch and Thruik(2001)은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비중으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업률을 축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Salgado-Banda(2005)는 1980~1995년 동안의 22개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하여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Kreft and Sobel(2005)은 비농업부문 단독 소유주(sole proprietor) 비중과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이용하고 기업가정신의 대용변수로 사용하며 경제성장과의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Dawson(2006)과 Gwarty et al.(2004) 등은 기업가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Fraser Institute의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를 이용하며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고 이는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으로 경제회복을 보다 더디게 만들 수 있다.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환경은 기업가들이 범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류를 줄여주며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저해하는 여러 창업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 특정사업을 수행한 후 창출한 이윤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그러나 김종호·오준병(2009), Grilo and Irigoyen(2006), Grilo and Thurik(2004) 등의 기업가정신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으로 창업환경 및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가의 수익성 판단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환경이나 인구구조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OECD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창업환경이나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환경의 국가별 차이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세부담이나 창업 관련 정책환경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도출에 본 논문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다음 II절은 경제학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정의와 가용한 대용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절은 II절에서 언급한 대용지표들의 최근 추이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한다. IV절에서 조세정책 변수를 중심으로 정책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의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시사점을 언급하며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II. 기업가정신의 정의와 대용지표

### 1. 경제학 고전을 통해 본 기업가정신의 정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이윤기회를 실현하는 기업가의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깡띠옹(R. Cantillon)이 죽은 지 21년 만인 1755년에 출간된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sup>2)</sup>이며 여기서 깡띠옹은 기업가를 위험을 부담하는 자이며 기업가의 소득은 토지임대료나 임금이 아닌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F. A. Hayek, 1985).

깡띠옹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된 기업가의 개념은 오랜 기간 잊혀 오다가 나이트(F. H. Knight)가 깡띠옹의 위험부담자로서의 기업가 이론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나이트는 192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기업가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윤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서의 불확실성은 위험과 달리 선택적으로 추론하거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확률분포를 알 수 없어서 보험(insurance)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업가가 부담하는 불확실성은 위험(risk)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이트에 따르면, 기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기업가 고유의 정신에 있으며 기업가의 우월한 예견력과 판단력으로 현재의 생산과 미래의 수요 사이의 시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경영자가 기업가로 변화한다.<sup>3)</sup>

1934년 슈페터(J. A. Schumpeter)가 기업가정신에 의해 발현되는 창조적 파괴과정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가정신이 일반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슈페터는 인구의 수 및 구조를 포함한 사회적 여건, 소비자의 기호, 생산방법 등이 일정한 순환적 흐름(circular flow)이 지속되는 정태적 상태에서 혁신적 변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기업가들이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요소들의 새

2) 이 책의 제목은 '상업일반론'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3) 결과적으로 기업가는 일반적인 경영자의 기능과 기업가 고유의 기능을 함께 가지며 그의 소득도 경영자로서의 계약적 소득(contractual income)과 기업가로서의 잔여소득(residual income)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기업가의 판단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대가이며 이는 통상적인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이트(1921)는 지적하고 있다.

로운 결합(new combination)<sup>4)</sup>이며 이것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드는 경제발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든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자가 기업가이며 창조된 기업을 순환적 상태로 경영해 가면 기업가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슈페터는 강조하고 있다.

기업가의 위험부담은 기업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하는 범위로 한정되고 기업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자본을 대부하는 자본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슈페터는 보고 있다. 창조적 파괴에 의한 성공적 기업가는 그의 새로운 결합을 모방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때까지 독점적 이윤을 누리며 슈페터는 이를 임금과 같은 생산요소의 용역에 대한 보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미제스(L. v. Mises, 1949)와 커즈너(I. Kirzner, 1973, 1990, 1997)와 같은 신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자들에 의해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배경이 발전되었다. 미제스는 경제학을 넘어서 인간행동이론(praxeology)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그의 주저서인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에서 기업가정신을 알려져 있지 않은 수단을 탐색하며 자기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uneasiness)을 제거하려는 미래지향적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행동의 일반적 속성으로부터 기업가정신을 도출하고 있으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단을 탐색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장참여자가 기업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을 보다 폭넓게 정의했음지라도, 미제스는 일반대중들보다 선구적이고, 기민하며, 모험적이며, 예리한 판단력(quick eyes)을 가진 자들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좁은 의미의 기업가이며 이들의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좁은 의미의 미제스의 기업가정신이다.<sup>5)</sup>

미제스의 인간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신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가정신은 커즈너가 1973년에 저술한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 체계화된다. 커즈너는 현실세계의 경쟁은 기업가정신의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투기적 요인(speculative element)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의 ‘기민한 이윤추구 행위’는 이윤획득기회에 대

---

4) 슈페터가 말하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은 새로운 재화의 생산이나 기존재화의 품질향상, 새로운 생산방법의 사용,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또는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획득, 독점 창출과 같은 새로운 산업조직을 말한다.

5) 미제스는 통상적인 좁은 의미의 기업가를 지칭하기 위해 ‘promot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궁극적 지식(ultimate knowledge)에 기초한 주관적인 확신(subjective confidence)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커즈너는 기업가정신의 본질은 자본가에게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의 부담이 아니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궁극적 지식을 갖고 기민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업가정신의 요체이며 이러한 기업가들의 경쟁이 시장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김이석, 1985).

경제학 고전에 나타나 있는 기업가정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으로 경제성장모형의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1990년대까지도 주류경제학 내에서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핵심 요인인 ‘새로운 지식’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화 또는 상업화하려는 기업가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물적 자본, 노동, 새로운 지식과 함께 기업가정신은 제4의 성장 동인으로서 경제성장에 독자적이고 고유한 기여를 한다는 지적이 Audretsch and Thurik(2001)과 Audretsch and Keilbach(2004)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의 지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윤기회를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 지식에 기초하며 주관적 확신에 찬 기업가의 기민한 이윤추구 행위를 기업가정신의 본질로 체계화한 커즈너의 정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 2. 가용한 기업가정신의 대응지표

기업가정신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로 고용주나 자영업자 비율, 국제특허 출원 건수, 신규법인 등록비율 등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변수들은 새로운 이윤기회를 실현하려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50여 개 국가별로 2천 명 안팎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결과로 작성한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지수를 사용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sup>7)</sup>

6) 굳이 학문 분야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경제학 분야를 넘어서 현대 경영학 관점의 기업가정신은 판매, 생산, 전략적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새로운 이윤기회를 실현하는 기업가 또는 경영자의 행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7) GEM data는 1999년 10개국을 대상으로 처음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54개국으로 조사대상 국가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기에 포함된 국가들이 모두 지속적인

여기서는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로서 네 가지의 변수를 고려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가동 중인 법인 수 대비 신규법인의 등록비율로서 새롭게 등록하는 법인이 많을수록 새로운 이윤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 보다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지표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새로운 공정,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혁신활동을 나타내는 국제특허 출원건수이다. 혁신을 위해서 기업 또는 개인들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므로 연구개발활동을 기업가정신을 대변하는 혁신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개발활동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제된 지표라 할 수 있는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고려한다. 세 번째 지표는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수 있다. 높은 고용주 비중은 한 경제 내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높은 기업가정신을 나타내 준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지수는 GEM의 TEA 지수이다. GEM의 TEA 지수는 국가별로 약 2,000명 안팎의 개인들을 설문조사하여 창업 준비를 하거나 창업 후 3년 반 미만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비율로 창업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가정신의 대응지표를 살펴보는 이유는 먼저 기업가정신이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각 지표 간의 추이나 국가별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이윤기회를 실현하는 기업가의 활동으로 규정한다면 기존 기업이 신시장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혁신활동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신규법인 등록비율, 고용주 비율의 변화, 창업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TEA 지수는 기존 기업의 혁신활동은 크게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기업의 혁신활동을 포괄하는 지수로는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있다. 이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기업의 혁신활동이 배제된 다른 지표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기업가정신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로 조사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01년과 2002년에는 분석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2008년부터 다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 Ⅲ. 기업가정신 대용지표들의 국제비교

#### 1. 신규법인 등록 비율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추이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규법인 등록비율로 2000년 이후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기존 등록법인 대비 25.3%의 신규기업들이 법인으로 등록했으며 20% 안팎의 비율을 2002년까지 유지했으나 2003년 16%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15%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신규법인 등록 비율로 살펴본 기업가정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불었던 벤처붐 기간 동안의 기업가정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3.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신규법인 등록 비율로 살펴본 OECD 평균 기업가정신은 10% 안팎의 수준의 안정적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0.8% 수준이던 OECD 평균은 2003년 9.2%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7년 현재 11.2%로 나타났다. 비록 신규법인의 등록 비율로 측정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그 추이는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보였고 하락폭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신규법인 등록비율이 조사된 18개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로는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신규법인 등록비율은 2000년 15% 수준이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19% 수준까지 상승했고 이후 15%를 상회하며 2007년 17.7%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이와 영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01년 14.2%이던 신규법인 등록 비율은 2004년 18.1%를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여 2007년 15.7%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신규법인 등록비율은 IT 붐이 꺼지던 2001년과 2002년 10% 안팎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4.4%에 달하고 있다. 2004년부터 해당 자료가 가용한 호주의 경우에는 14%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 신규법인 등록비율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	-	-	-	14.9	14.3	13.1	14.0
Austria	-	5.2	5.0	4.7	4.9	5.1	5.1	4.6
Belgium	7.6	7.0	6.7	7.0	7.6	7.4	7.9	-
Canada	6.9	6.7	5.1	5.6	6.0	6.7	7.8	8.3
Czech Republic	-	-	-	5.3	6.6	6.1	6.7	-
Denmark	13.8	10.8	9.9	10.6	12.1	13.3	14.8	14.4
Finland	-	7.4	7.2	7.1	7.6	7.8	8.7	-
France	8.9	8.6	8.4	9.3	10.6	10.5	10.8	-
Germany	-	-	18.4	15.4	15.0	11.9	-	-
Greece	5.7	5.0	5.7	5.8	5.4	-	-	-
Hungary	9.4	10.0	10.0	9.5	10.7	9.2	9.0	10.3
Iceland	14.2	11.9	16.8	11.9	11.4	11.6	11.8	12.5
Ireland	13.2	9.8	9.0	9.7	9.9	10.7	11.2	10.3
Italy	13.8	15.8	14.9	12.7	12.7	12.7	12.3	12.1
Japan	-	-	3.7	4.1	4.3	4.4	-	-
Korea	25.3	21.7	19.5	16.0	14.2	14.6	13.6	13.6
Luxembroug	-	12.9	11.9	11.1	10.7	11.7	-	-
Mexico	-	-	-	-	-	7.1	-	-
Netherlands	-	-	9.4	9.2	10.3	11.3	-	-
New Zealand	-	14.2	15.6	17.8	18.1	16.3	15.2	15.7
Norway	-	8.5	8.0	7.5	8.8	10.9	13.6	-
Poland	-	-	4.9	4.9	4.7	4.7	5.0	-
Portugal	7.0	13.5	6.5	6.0	6.8	6.4	6.8	7.3
Slovak Republic	8.1	7.8	6.2	6.1	10.3	12.0	11.6	11.8
Spain	7.8	7.0	6.8	6.7	6.7	6.5	6.5	6.0
Sweden	7.5	5.9	5.6	5.4	6.5	6.8	7.7	8.6
Switzerland	-	-	12.7	8.9	9.4	6.2	17.0	11.3
Turkey	9.4	8.4	8.3	8.4	11.6	13.0	12.0	12.3
United Kingdom	14.9	14.9	13.6	18.1	19.3	15.4	16.0	17.7
United States	-	-	-	12.5	13.0	13.1	-	-
OECD 평균	10.8	10.1	9.6	9.2	10.0	9.9	10.6	11.2

주: WDI 자료에는 한국의 신규법인 등록비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비교를 위해 저자가 한국은행의 신설법인수와 국제통계연보의 연도 말 가동법인수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orld Bank, 2009.

〈표 2〉 국제특허 출원건수 추이

(단위: 경제활동인구 백만 명당 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ustralia	37.6	33.1	34.9	33.3	35.3	35.3	32.5	32.3
Austria	69.8	65.5	79.5	83.4	94.1	90.3	97.9	99.7
Belgium	81.8	77.9	78.6	74.4	92.6	90.5	90.1	91.5
Canada	32.9	32.4	34.7	33.1	37.0	42.9	41.1	38.9
Czech Republic	1.7	2.8	3.2	3.1	2.9	2.8	3.6	3.8
Denmark	83.3	79.4	80.6	86.7	103.7	108.8	102.7	112.6
Finland	143.4	133.1	104.1	115.0	129.9	124.7	123.3	119.2
France	87.1	83.5	83.4	83.3	87.9	88.1	88.4	87.9
Germany	150.6	140.1	136.4	142.7	148.7	152.0	149.3	151.6
Greece	1.5	1.2	1.7	2.6	1.8	2.9	2.7	2.5
Hungary	8.4	7.5	6.8	9.6	10.3	9.6	10.0	10.6
Iceland	64.3	22.7	48.3	22.6	8.9	29.1	32.1	24.8
Ireland	23.3	28.2	27.7	35.0	35.6	33.4	34.3	35.6
Italy	28.9	30.4	30.2	29.7	31.3	31.8	31.7	30.6
Japan	218.3	205.1	202.2	202.8	201.4	208.2	219.3	222.8
Korea	31.7	40.3	52.5	73.4	89.9	96.7	102.2	93.5
Luxembroug	105.6	128.5	64.9	101.5	117.3	94.2	116.0	91.6
Mexico	0.2	0.3	0.2	0.4	0.3	0.4	0.4	0.4
Netherlands	122.2	145.7	128.4	126.6	126.8	123.4	123.6	122.3
New Zealand	26.6	20.9	29.5	29.9	29.5	26.9	24.0	22.4
Norway	44.8	37.3	43.5	39.8	42.8	51.9	51.0	49.2
Poland	0.5	0.6	0.8	0.6	0.9	0.9	1.0	1.2
Portugal	0.7	1.1	1.1	1.3	1.2	2.2	2.0	2.0
Slovak Republic	0.8	0.7	1.0	1.7	1.1	1.5	1.7	1.6
Spain	8.2	8.8	8.6	8.5	10.7	9.6	10.4	10.8
Sweden	148.8	145.1	149.9	144.1	148.8	156.2	163.0	172.3
Switzerland	206.2	197.2	195.9	203.2	211.6	213.5	211.5	210.8
Turkey	0.2	0.4	0.3	0.3	0.5	0.5	0.8	1.0
United Kingdom	56.3	53.7	54.5	54.6	53.9	55.5	54.2	53.1
United States	97.0	91.2	96.5	101.3	105.1	104.4	103.4	101.6
OECD 평균	62.8	60.5	59.3	61.5	65.4	66.3	67.5	66.6

주: 2010년 1월에 2000년과 2001년의 확정치가 발표되었고 2003년 이후 자료는 이전에 발표된 자료를 수정한 잠정치임.

자료: OECD

## 2.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추이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데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용지표 중 하나인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한 국가의 혁신 역량을 보여주며 슈페터의 기업가정신에 가장 근접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공정,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공정, 기존의 상품,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윤기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활동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2000년 경제활동인구 백만 명당 31.7건으로 같은 연도 62.8건인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03년에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102.2건을 기록하며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93.5건으로 하락하며 2000년 이후 보였던 지속적 증가 추세가 하락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OECD 평균을 2003년 이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백만 명당 200건 이상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스위스나 일본과 같은 선도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120~170건 수준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20건 수준의 핀란드와 덴마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 추이와 국제비교 결과는 기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포괄하는 지표인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최근 들어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도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 3. 고용주 비율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추이

고용주를 새로운 이윤기회를 모색하고 실현하는 기업가로 본다면 한 경제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고용주 비율의 변화는 그 경제의 기업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고용주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04년 7.2%로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6.3%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용주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 고용주 비율은 2000년 6.2%에서 2007년 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용주 비율 축소폭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 이후의 하락추세는 기업가정신의 위축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 핀란드의 고용주 비율은 11%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스웨덴의 고용주 비율도 9%대에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터키와 그리스의 고용주 비율은 2000년 대비 약 0.5%포인트 정도의 소폭 상승하였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GEM의 TEA 지수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추이

창업단계와 창업 이후 초기 사업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GEM의 TEA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1년과 2002년에 조사되었으나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08년과 2009년에 다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GEM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기의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4%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0%와 7%로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기업가정신은 2000년대 초반에는 9% 내외의 수준을 보이다가 중반 이후 6~7%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덴마크, 이탈리아의 기업가정신은 매우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 2000년대 초반의 TEA 지수 대비 2000년대 후반의 축소폭이 50%에 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3.3%를 보인 일본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8개 국가들의 TEA 지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기업가정신의 대용지표들과는 달리 기업가정신을 창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어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 중에서 기업가정신을 직접 측정하고자 시도한 유일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표 3〉 고용주 비율 추이

(단위: 경제활동인구 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3.4	3.3	3.2	3.0	3.0	2.9	2.8	2.6	2.6
Austria	5.2	5.3	5.6	5.4	4.3	4.5	4.8	4.9	4.6
Belgium	-	-	-	-	-	4.2	4.3	4.1	3.9
Canada	5.2	4.9	4.7	4.7	4.9	5.0	4.8	4.8	-
Czech Republic	3.8	3.6	3.7	3.8	3.7	3.4	3.8	3.5	3.4
Denmark	-	-	-	-	-	-	-	-	-
Finland	11.7	11.2	11.1	11.2	11.1	11.0	11.3	11.1	11.4
France	-	-	-	3.9	3.9	3.9	3.9	3.9	4.2
Germany	4.6	4.6	4.7	4.5	-	-	-	-	-
Greece	7.1	7.3	6.8	6.6	7.2	7.3	7.5	7.5	7.7
Hungary	4.8	5.0	5.0	4.9	5.5	5.5	5.0	4.8	4.7
Iceland	7.2	6.0	5.9	4.8	4.8	5.1	4.9	4.7	4.4
Ireland	5.6	5.7	5.6	5.5	5.5	5.4	5.2	5.6	5.4
Italy	12.8	10.9	10.9	11.1	-	-	-	-	-
Japan	2.7	2.6	2.5	2.5	2.5	2.5	2.5	2.5	2.4
Korea	6.6	6.9	7.1	7.1	7.2	7.0	6.8	6.5	6.3
Luxembroug	-	-	-	-	-	-	-	-	-
Mexico	4.3	4.4	4.3	4.0	4.2	4.6	4.8	4.9	4.8
Netherlands	10.8	-	-	-	-	-	-	-	-
New Zealand	6.6	6.7	6.5	6.7	6.7	6.2	5.2	5.1	4.9
Norway	-	-	-	-	-	-	2.0	2.1	2.0
Poland	3.3	3.1	3.0	3.0	3.2	3.2	3.5	3.6	3.8
Portugal	5.7	5.9	5.9	6.0	6.0	5.4	5.0	5.1	5.1
Slovak Republic	2.0	2.1	2.0	2.3	2.7	2.7	2.7	2.8	2.9
Spain	4.4	4.7	4.7	4.7	4.8	4.7	5.0	5.0	5.1
Sweden	9.4	9.2	9.0	8.8	9.0	8.9	9.1	9.7	9.5
Switzerland	6.6	6.3	6.0	6.1	5.8	5.8	5.7	5.4	5.6
Turkey	4.7	4.7	4.9	4.4	4.1	4.5	4.8	5.1	5.2
United Kingdom	-	-	-	-	-	-	-	-	-
United States	-	-	-	-	-	-	-	-	-
OECD 평균	6.2	5.7	5.6	5.4	5.2	5.2	5.0	5.0	5.0

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국가들의 결측치는 종사상 지위 중 고용주를 분리하여 발표하지 않는 경우임.

자료: ILO database

〈표 4〉 GEM TEA 지수의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15.2	15.5	8.7	11.6	13.4	10.9	12.0	-	-	-
Austria	-	-	-	-	-	5.3	-	2.4	-	-
Belgium	4.8	4.5	3.0	3.9	3.5	3.9	2.7	3.2	2.9	3.5
Canada	12.2	11.0	8.8	8.0	8.9	9.3	7.1	-	-	-
Czech Republic	-	-	-	-	-	-	7.9	-	-	-
Denmark	7.2	8.0	6.5	5.9	5.3	4.8	5.3	5.4	4.4	3.6
Finland	8.1	7.7	4.6	6.9	4.4	5.0	5.0	6.9	7.3	5.2
France	5.6	7.4	3.2	1.6	6.0	5.4	4.4	3.2	5.6	4.3
Germany	7.5	8.0	5.2	5.2	4.5	5.4	4.2	-	3.8	4.1
Greece	-	-	-	6.8	5.8	6.5	7.9	5.7	9.9	8.8
Hungary	-	11.4	6.6	-	4.3	1.9	6.0	6.9	6.6	9.1
Iceland	-	-	11.3	11.2	13.6	10.7	11.3	12.5	10.1	11.4
Ireland	-	12.2	9.1	8.1	7.7	9.8	7.4	8.2	7.6	-
Italy	7.3	10.2	5.9	3.2	4.3	4.9	3.5	5.0	4.6	3.7
Japan	6.4	5.2	1.8	2.8	1.5	2.2	2.9	4.3	5.4	3.3
Korea	-	14.9	14.5	-	-	-	-	-	10.0	7.0
Luxembroug	-	-	-	-	-	-	-	-	-	-
Mexico	-	18.7	12.4	-	-	5.9	5.3	-	13.1	-
Netherlands	-	6.4	4.6	3.6	5.1	4.4	5.4	5.2	5.2	7.2
New Zealand	-	18.1	14.0	13.6	14.7	17.6	-	-	-	-
Norway	11.9	8.8	8.7	7.5	7.0	9.2	9.1	6.5	8.7	8.5
Poland	-	10.0	4.4	-	8.8	-	-	-	-	-
Portugal	-	7.1	-	-	4.0	-	-	8.8	-	-
Slovak Republic	-	-	-	-	-	-	-	-	-	-
Spain	6.9	8.2	4.6	6.8	5.2	5.7	7.3	7.6	7.0	5.1
Sweden	6.7	6.7	4.0	4.1	3.7	4.0	3.5	4.2	-	-
Switzerland	-	-	7.1	-	-	6.1	-	6.3	-	7.7
Turkey	-	-	-	-	-	-	6.1	5.6	6.0	-
United Kingdom	6.9	7.8	5.4	6.4	6.3	6.2	5.8	5.5	5.9	5.7
United States	16.6	11.6	10.5	11.9	11.3	12.4	10.0	9.6	10.8	8.0
OECD 평균	8.8	10.0	7.2	6.8	6.8	6.8	6.4	6.2	7.1	6.2

자료: GEM 연도별 보고서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대응지표들의 추이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표마다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 이후 위축되는 추세이거나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기업가정신의 추이에서처럼 상승하는 추세이더라도 2007년에 다소 위축되며 선도그룹의 국가들의 기업가정신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정책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윤 기회를 모색하고 실현하는 기업가의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실현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려는 기업가 스스로의 노력이다. 그러나 기업가에게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정책환경도 기업가정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정책환경이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거나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조세부담이나 창업단계의 시간 및 물질적 비용과 같은 정책적 환경은 특정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실현하고자 할 때 기업가는 불확실한 이윤에 직면한다. 그 불확실한 수익성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환경 변수에 의해 더욱 악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정책환경은 기업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두 번째 오류, 즉 특정사업의 수익성을 비

8) Gentry and Hubbard(2002)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누진적 세율구조하에서 더욱 악화된다. 또한 Feldstein and Slemrod(1980), Gordon(1998), Cullen and Gordon(2002)은 특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개인소득세제보다는 법인세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는 법인등록을 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업을 선택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들의 분석은 한 경제의 세율구조하에서 소득원천의 변화(income shifting)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세계적으로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창업단계에서 법인사업체로 시작할 유인이 클 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클수록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저해된다고 볼 수 있다.

관적으로 보고 수행조차 하지 않는 오류를 축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일인당 소득 수준과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 여건 및 인구구조적 요인들과 함께 창업환경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부담과 같은 정책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잘못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세정책과 창업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정책 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래의 식(1)과 같은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모형을 설정한다.<sup>9)</sup>

$$E = \alpha' Tax + \beta' SBE + \gamma' CV + \lambda_i + \delta_t + \epsilon \quad (1)$$

여기서  $E$ 는 기업가정신,  $Tax$ 는 조세정책 변수,  $SBE$ 는 창업환경 변수,  $CV$ 는 통제변수를 나타내고  $\lambda$ 는 국가특성 고정효과 더미변수,  $\delta$ 는 연도 더미변수,  $\epsilon$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기업가정신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대용변수를 사용한다. 조세정책 변수는 OECD에서 발표하는 국민부담률, GDP 대비 법인세수로 측정한 법인세부담, GDP 대비 소득세수로 측정한 소득세부담을 사용한다.<sup>10)</sup> 창업환경 변수는 World Bank에서 발표하고 있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창업소요시간을 사용한다. 창업비용은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비율로 측정된다. 창업절차는 기업을 설립해서 등록하는 데 걸리는 단계를 나타내고 창업소요시간은

9) 여기서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이유는 추정식(1)에 설명변수로 설정되지 않았으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고정효과 더미변수가 다른 설명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에 기초한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추정과정에서 Hausman 검정을 통해 5% 또는 1%의 유의수준에서 확률효과 모형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여기서 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의 비중인 국민부담률을 설명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뿐만 아니라 고용자 부담의 사회보장기여금도 강제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창업에 걸리는 일수를 나타낸다.<sup>11)</sup> 그리고 국가별 및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WDI에서 찾을 수 있는 실업률, 실질경제성장률, 로그 치환한 1인당 실질GDP와 고령화 비율을 사용한다.<sup>12)</sup>

분석대상 국가들은 OECD 30개 국가들로 설정하고 분석기간은 2003~200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대용변수와 주요 정책변수들의 결측치들 때문에 분석대상 국가의 수는 적은 경우 23개이다. 분석기간이 2003년부터인 이유는 WDI에서 찾을 수 있는 창업환경 관련 변수들이 2003년부터 가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1)에서 설정하고 있는 모형은 불균형 패널모형이 된다. 식(1)의 추정은 통상적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경우 추정계수에 내생성에 의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변수들 중 조세정책 변수와 창업비용은 GDP 대비 또는 1인당 GNI 대비로 측정했기 때문에 완전한 외생변수가 아니다. 기업가정신은 GDP와 GNI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들이 오차항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으로 추정한다. 도구변수로는 법인세율, 소득세율, 각 설명변수들의 국가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연도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와 1기 시차변수들을 사용한다.<sup>13)</sup>

## 2. 실증분석 결과

<표 5>~<표 8>은 식 (1)의 회귀분석결과를 네 가지 기업가정신 대용변수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각 회귀분석결과는 6가지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세정책 변수와 창업환경 변수를 추정식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정책 변수는 국민부담률을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부담률 대신에 법인세부담과 소득세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창업환경 변수는 창업비용만을 추정식에 포함하는 경우와 창

---

11)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동시에 설명변수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12) 고령화 비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13) 여기서 사용한 도구변수들은 강한 외생성을 가진 변수들이라기보다는 동시적 오차항 및 미래의 오차항과는 독립적인 변수들을 사용했다. 기초추정과정에서 도구변수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환경을 나타내는 조세 및 창업관련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사전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반대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용과 창업절차를 동시에 추정식에 포함하는 경우 및 창업비용과 창업소요시간을 추정식에 포함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신설법인 등록 비율로 기업가정신을 측정한 경우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5-6)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추정결과에서 조세정책 변수의 추정계수들이 1~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창업환경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된다. 창업비용의 추정계수가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의 계수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조세정책 변수로 국민부담률을 사용한 (5-1)의 경우뿐이다.

창업비용과 창업절차 또는 창업소요시간을 함께 추정식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세정책 변수가 설정되든 상관없이 창업비용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의 추정계수만 1~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법인 비율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으로 사업체의 유형만 전환하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결과는 기업가정신을 신설법인비율로 측정한 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 고령화 비율의 추정계수가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의 경우에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복잡하고 길수록 신설법인 등록 비율로 측정한 기업가정신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가정신은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경우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조세부담을 낮추고 창업환경을 절차와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 나타나 있는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기업가정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부담률과 법인세부담률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지만 소득세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국제특허 출원의 대부분은 개인보다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상과 부합한다 할 수 있다. 개인들의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기업가정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기업가

정신은 창업비용, 창업절차 또는 창업소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율의 추정계수는 (6-3), (6-5), (6-6)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가정신과 고령화 비율 사이의 실증적 관계는 모형 설정에 따라 다소 가변적임을 시사한다.

고용주 비율로 측정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추정결과를 찾을 수 있는 <표 7>을 살펴보면, 조세정책 변수는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조세부담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위축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주 비율 대신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김학수(2009)와 Garrett and Wall(2006)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결과들은 소득세 부담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2009)는 본 논문에서처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한 소득세부담을 사용했고 Garrett and Wall(2006)은 미국의 주별 자료를 이용하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세정책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부담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결과를 갖게 되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자영자가 소득세부담을 고려하여 자영업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세부담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희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분리해서 고용주 비율만을 기업가정신의 대용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조세정책 변수로 국민부담률을 고려할 경우에는 창업환경 관련 변수들 중 창업비용과 창업절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정책 변수로 소득세부담과 법인세부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 등의 비금전적 창업요인들만이 기업가정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주 비율로 측정한 기업가정신의 경우 앞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실업률이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이 제고되고 고령화 비율은 기업가정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GEM에서 기업가정신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 TEA 지수를 사용한 경우의 회귀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는 <표 8>을 살펴보면, 조세정책 변수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창업환경 관련 변수들만 대체적으로 1~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비용과 창업절차를 함께 고려한 (8-2)와 (8-5)의 경우에는 창업비용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세정책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창업환경 관련 변수들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갖게 된 주요 원인은 TEA 지수가 창업활동의 초기단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EA 지수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이후 3.5년 미만인 기업가들이 전체 조사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작성되므로, 기존의 중견 또는 대기업들의 혁신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기업의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변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추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이 창업활동의 초기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세부담과 창업환경과 같은 정책환경은 기업가정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이 보다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적 요인들은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도 어려울뿐더러 이상의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짧아서 고령화와 같은 장기적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추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보다 많이 발현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수단은 기업가들의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이러한 지적은 Acs et al.(2008)에서도 찾을 수 있다. Acs et al.(2008)은 GEM의 TEA 지수는 개발도상국가일수록 높은 값을 갖고 선진국일수록 낮은 값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GEM의 TEA 지수는 잠재적 기업가의 공급가능성을 나타낼 뿐 실제 기업가정신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5〉 신설법인 등록 비율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의 경우

	(5-1)		(5-2)		(5-3)		(5-4)		(5-5)		(5-6)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국민부담률	-0.2047**	-1.9900	-0.2032*	-2.8109	-0.1923**	-2.1673						
법인세부담							-0.5349***	-1.7770	-0.5872*	-2.5229	-0.5031	-1.6434
소득세부담							-0.8699*	-2.9683	-0.7619*	-4.6355	-0.8583*	-5.5318
창업비용	-0.0447*	-5.3561	-0.0258	-1.5910	-0.0203	-1.2079	-0.0209	-1.2277	-0.0060	-0.3747	0.0023	0.1239
창업절차			-0.4738*	-4.7312					-0.4320*	-6.2915		
창업소요시간					-0.0143***	-1.8721					-0.0138*	-2.4709
실업률	-0.0846	-0.6658	-0.1177	-0.9112	-0.0387	-0.3602	-0.1310	-0.9544	-0.1655	-1.1723	-0.0834	-0.7425
고령화 비율	-1.6845*	-3.5015	-1.4820*	-4.1186	-1.4631*	-3.0871	-1.7363*	-4.5875	-1.5597*	-5.3363	-1.5213*	-3.5065
실질경제성장률	0.3305*	3.0472	0.2831*	3.2344	0.3335*	3.4977	0.2685***	1.7871	0.2384**	2.1762	0.2703**	2.0604
1인당 GDP	1.8881	1.0560	4.8824*	2.7196	3.3703***	1.7594	1.6213	0.9442	4.0615**	2.3501	3.0812***	1.7763
<i>adj. R</i> <sup>2</sup>	0.9439		0.9472		0.9450		0.9475		0.9504		0.9485	
관측 수	81		81		81		81		81		81	
국가 수	25		25		25		25		25		25	

주: 1) 회귀식에 국가별 고정효과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했음.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도구변수로는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시차변수, 국가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와 연도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을 사용했음.

〈표 6〉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의 경우

	(6-1)		(6-2)		(6-3)		(6-4)		(6-5)		(6-6)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국민부담률	-0.0308***	-1.8757	-0.0370***	-1.9175	-0.0291***	-1.8358						
법인세부담							-0.0550***	-1.8057	-0.0623***	-1.7886	-0.0663*	-3.4970
소득세부담							0.0016	0.2550	-0.0004	-0.0460	-0.0008	-0.1036
창업비용	-0.0157*	-4.1968	-0.0109*	-4.8226	-0.0137*	-3.9762	-0.0176*	-5.5137	-0.0127*	-4.4404	-0.0150*	-5.6825
창업절차			-0.0494	-1.2199					-0.0568*	-4.9120		
창업소요시간					-0.0019**	-2.2708					-0.0023**	-2.0752
실업률	0.0018	0.3659	0.0012	0.3026	0.0020	0.3284	-0.0037	-0.9317	-0.0037	-0.8924	-0.0033	-0.7479
고령화 비율	0.0114	0.6068	-0.0387	-0.7936	-0.0242***	1.8730	-0.0874*	2.8902	0.0258	1.4990	-0.1146*	3.0765
실질경제성장률	0.0251*	3.2610	0.0211*	6.2859	0.0223*	3.2792	0.0203	1.5006	0.0119	1.1237	1.4586	1.6697
1인당 GDP	1.4254*	7.1177	1.6254*	4.9007	1.5700 *	5.1858	2.2423*	4.4358	2.5210*	6.5922	2.4019*	8.7048
<i>adj. R</i> <sup>2</sup>	0.9980		0.9981		0.9981		0.9971		0.9972		0.9972	
관측 수	116		116		116		70		70		70	
국가 수	30		30		30		25		25		25	

주: 1) 회귀식에 국가별 고정효과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했음.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도구변수로는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시차변수, 국가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와 연도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을 사용했음.

〈표 7〉 고용주 비율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의 경우

	(7-1)		(7-2)		(7-3)		(7-4)		(7-5)		(7-6)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국민부담률	-0.1339*	-5.1074	-0.1438*	-3.5318	-0.1354*	-5.4500						
법인세부담							-0.2664**	-2.3172	-0.2359**	-2.0813	-0.2834**	-2.2838
소득세부담							-0.1334*	-3.1007	-0.1823*	-4.3023	-0.1394*	-3.0470
창업비용	-0.0135*	-22.3018	-0.0211*	-3.7150	-0.0135*	-24.1608	-0.0004	-0.0422	-0.0085	-0.7290	-0.0002	-0.0241
창업절차			-0.1558*	-7.2030					-0.1645*	-5.0191		
창업소요시간					0.0007	0.4262					-0.0020**	-1.7459
실업률	-0.0601**	-2.0853	-0.1098*	-3.5391	-0.0616**	-2.2679	-0.0653***	-1.7475	-0.1146*	-5.0475	-0.0626**	-1.8613
고령화 비율	0.1997	0.5329	0.4119*	2.5595	0.1864	0.4445	0.2004	0.4133	0.4191	1.2476	0.2502	0.5091
실질경제성장률	0.0193	0.3880	-0.0107	-0.1184	0.0211	0.4058	0.0173	0.3061	-0.0147	-0.3338	1.0196	0.1794
1인당 GDP	1.8054**	2.6350	-1.9015	-1.6673	1.8102**	2.7785	1.8875	1.5746	-1.6936	-0.9698	1.7732	1.3321
<i>adj. R</i> <sup>2</sup>	0.9864		0.9882		0.9859		0.9851		0.9869		0.9845	
관측 수	56		56		56		56		56		56	
국가 수	23		23		23		23		23		23	

주: 1) 회귀식에 국가별 고정효과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했음.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도구변수로는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시차변수, 국가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와 연도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을 사용했음.

〈표 8〉 TEA 지수로 측정한 기업가정신의 경우

	(8-1)		(8-2)		(8-3)		(8-4)		(8-5)		(8-6)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국민부담률	0.2391	1.4862	0.2338	1.0101	0.2508	1.2899						
법인세부담							0.4955	1.3026	0.0590	0.0886	0.2010	0.6369
소득세부담							0.5091	1.4230	0.4373	1.2168	0.5583	1.3411
창업비용	-0.1096*	-2.9784	-0.0093	-0.2558	-0.0656**	-2.5144	-0.1122**	-2.6009	-0.0005	-0.0096	-0.0651**	-2.0398
창업절차			-0.9232*	-3.3240					-1.0461*	-3.5304		
창업소요시간					-0.0248**	-2.8109					-0.0277*	-3.3948
실업률	0.0936	0.9000	-0.0223	-0.2570	0.1328*	4.2380	0.1158	1.2989	-0.0568	-0.5069	0.1514*	3.4697
고령화 비율	0.2615	1.2213	-0.4015	-0.5433	0.1688	1.1601	-0.1015	-0.5965	-0.3784	-0.5294	0.0663	0.4387
실질경제성장률	-0.0183	-0.1505	-0.2059	-1.6118	-0.0877	-0.6009	-0.0148	-0.0954	-0.1688**	-2.0421	-9.1977	-0.6896
1인당 GDP	-2.6197	-0.7460	0.3294	0.0603	-3.6194	-0.8976	-4.9117	-1.0552	1.0203	0.1388	-4.3112	-0.9703
<i>adj. R</i> <sup>2</sup>	0.8571		0.8610		0.8708		0.8603		0.8496		0.8700	
관측 수	89		89		89		89		89		89	
국가 수	23		23		23		23		23		23	

주: 1) 회귀식에 국가별 고정효과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했음.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도구변수로는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시차변수, 국가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와 연도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을 사용했음.

## V. 시사점

본 논문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기업가정신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대용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정책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목적의 분석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의 국가별·연도별 기업가정신 대용지표들의 추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정책환경으로 조세부담과 창업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조세정책 변수들이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이 창업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 요인은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대용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실증적으로 강하게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나타났지만 창업여건과 조세부문의 국제경쟁력은 183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각각 53위와 49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창업여건과 조세부문이 우리나라 기업경영여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 동력을 보다 확충하고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한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고령화 비율 축소 내지 둔화와 같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정책수단보다는 감세정책의 유지 및 강화와 창업환경의 부단한 개선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이석, 『新오스트리아學派의 競爭理論 - 市場過程接近法에 대한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김종호·오준병, 『규제,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분석』,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2009.
- 김학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KERI Insight 09-03, 한국경제연구원, 2009.
- Acs, Z. J., Desai, S. and Klapper L. F., “What Does “Entrepreneurship” Data Really Show?: A Comparison of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and World Bank Group Datase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667, The World Bank, 2008.
- Aghion, P., and Howitt P.,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 1992, pp.323-351.
- Audretsch, D. B., and Keilbach M.,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38, 2004, pp.949-959.
- Audretsch, D. B. and Thurik R., “Linking Entrepreneurship to Growth,” OECD STI Working papers 2001/2, 2001.
- Cullen, J. B. and Gordon R. A., “Taxe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Theory and Evidence for the U.S.,” NBER Working Paper No.9015, 2002.
- Dawson, J. W.,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across Countries,” *Cato Journal* 26, 2006, pp.489-509.
- Feldstein, M. and Slemrod J., “Personal Taxation, Portfolio Choice, and the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1980, pp.854-866.
- Garrett, T.A. and Wall H. J., “Creating a Policy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 *Cato Journal* 26, 2006, pp.525-552.
- Gentry, W. M. and Hubbard R. G., “Tax Policy and Entrepreneurial E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0, 2000, pp.283-287.

- Gordon, R., "Can High Personal Tax Rates Encourage Entrepreneurial Activity?," *IMF Staff Papers* 45, pp.49-60.
- Grilo, I. and Irigoyen J. M., "Entrepreneurship in the EU: To Wish and not to be," *Small Business Economics* 26, 2006, pp.305-318.
- Grilo, I. and Thurik R.,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in Europe," *Papers on Entrepreneurship, Growth and Public Policy*, Max Planck institute of Economics, 2004.
- Gwartney, J. D., Holcombe, G. R., and Lawson R. A., "Economic Freedom, Institutional Quality,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come and Growth," *Cato Journal* 24, 2004, pp.205-233.
- Hayek, F. A., "Richard Cantillon,"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7, 1985, pp.219-247.
- Kirzner, I. M.,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1997, pp.60-85.
- \_\_\_\_\_, "Knowledg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Some Relevant Distinctions," *Cultural Dynamics* 3, 1990, pp.32-48.
- \_\_\_\_\_,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Knight, F.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 and Mifflin, 1921.
- Kreft, S. F. and R. S. Sobel, "Public Polic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Freedom," *Cato Journal* 25, 2005, pp.595-616.
- Mises, L. von,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Yale University Press, 1949.
- Romer, P. M.,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990, pp.71-102.
- Salgado-Banda, H.,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Direccion de Estudios Economicos Direccioj Gdneral de Investigacion Economica Banco de Mexico*, 2005.
-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9 No.2 December 2010

## Entrepreneurship and Policy Environment - Focusing on OECD Countries -

Hag-Soo Kim

This paper suggests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tax policies as well as spin-off environments are key policy variable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across OECD countries. It also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encourage entrepreneurship manifestation. According to my empirical analysis, entrepreneurship is discouraged as tax burden or regulation on the spin-offs is enhanced. However, I could not find any strong evidence for the population structure, as a determinant of entrepreneurship, such as the ratio of 65 years old or above in the pop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implied that the tax burden should be reduced and the environment for starting businesses should be continuously and drastically improved. In addition, the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stering entrepreneurship should be found in both tax policy and starting business environment rather than rejuvenating the population structure by increasing birth rate in Korea.

Key words: Entrepreneurship, Tax Policy, Spin-off Regulation

JEL Classification: A10, H20, K20